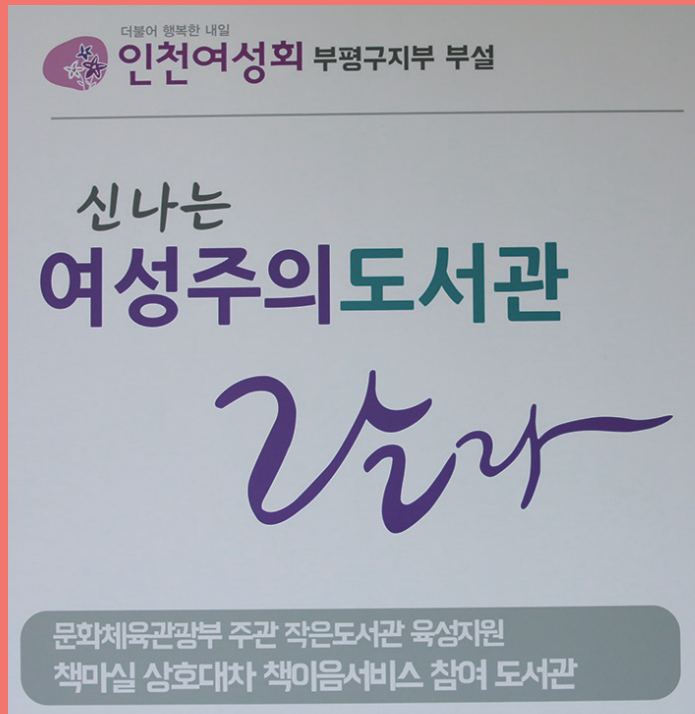


심성장이 있는 여성도서관
#인천 부평구 #여성주의 특화

신나는여성주의 도서관 랄라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재미있는 공간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는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여성의 삶에 주목하는 여성 특화 도서관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 책들은 물론 특히 여성주의 이론서부터 소설과 그래픽 노블까지 다양한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곳입니다. 기획전시, 플리마켓, 여성주의 강좌와 책모임·영화모임 등으로 함께 떠들고 배우고 시도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공간입니다.

랄라의 신나는 도전

2003년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재미있고 신나는 곳이 되길 바라며 신나는어린이도서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2013년에는 어린이 중심에서 이용대상을 확대해보려는 시도로 신나는도서관으로 재개관을 했습니다. 2017년에는 다시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로 특화도서관이 되었네요.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 그대로,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이 즐겁길 바라는 마음에 랄라를 붙였습니다.



**특화지원사업과 함께한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의 2017년은 어떠
했나요?**

십여 년 넘게 도서관을 운영하다보니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도 느꼈습니다. 결정적으로 버스 한 정거장 거리에 구립도서관이 생기면서 우리의 존재이유에 대해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우스갯소리처럼 “특화만이 살 길이다!”를 외치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인천여성회 부설 도서관이고, 여성회 활동의 결과와 특성을 담아 여성특화도서관으로 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기존의 주 이용자는 아이와 엄마였기에 엄마로서의 여성에서 다양한 여성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나는여성도서관으로 가려 했는데 남성과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도서관을 지향하기에 우리가 운영할 내용에 맞는 주제인 페미니즘, 성평등, 여성주의를 놓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을에서 여성주의를 내걸고 가는 것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선명하게 내세워보자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초반에 그린 여성특화도서관은 소박했습니다. 여성주의를 주제로 한 ‘도서관 속 도서관’으로 성평등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특화지원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공간에 대한 고민으로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집담회, 워크숍, 개관준비팀 회의, 자문팀 회의 등 셀 수 없이 많은 회의로 실무도 많았고, 공사규모가 커지기도 했기에 신경 쓸 일투성이었습니다. 그 무게에 눌러 안타깝게도 설레고 기대되는 건 공사가 들어가면서 부터였습니다. 그래도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이 좋은 기운을 듬뿍 주셔서 잘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박소희 이사장님은 애정 어린 마음으로 중간 중간 저희가 놓치고 가는 일들을 챙겨주셨습니다. 사업 초반 핵심가치와 방향설정에 함께하며 작은도서관의 변화와 시작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특화를 준비하면서 가볼만한 공간들을 추천해주시고, 동행해주시면서 도서 분류에 대한 고민과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공간, 머무르고 싶어 하는 공간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개관식 전에 공사한 도서관 모습이 궁금하다고 보러 오셨다가,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후원물품인 생강청 만들기에 동참하여 생강 썰다 가신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맡아주신 이은령 소장님과의 만남은 2017년 최고의 행운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과 무엇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며 고민 많고 막연했던 저희에게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밤늦게 통화하고, 만나고, 쉬는 날 구분 없이

의견교환이 가능했던 열정적인 소장님의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랄라에 적용 가능할까요?” 물으면 “그건 이리이러해서 맞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주시고, “그럼 이런 건요?” 또 물으면 “그건 이렇게 살짝 바꿔봅시다.” 하고 에둘러 말하지 않고 바로바로 말씀해주는 스타일이 편했습니다.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덕분에 좋은 공간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 공사 전의 도서관 내부 ①



▲ 공사 전의 도서관 내부 ②

또한 안정희 작가님께서선 랄라에 꽃다발을 들고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따뜻한 감성으로 장서개발과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특강을 해주신 안정희 작가님. 가장 고민되었던 분류법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성자료읽기 모임을 다양하게 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셨고, 이후 기획전시에 참고가 될 만한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상상만으로도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성 관련 많은 책을 소개해 주셔서 ‘읽고 싶다’는 마음과 ‘언제 다 읽지?’라는 부담이 같이 오긴 했지만요. 앞으로 여성과 책과 이야기의 결합이 있는 사례로 저희가 소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외에도 재개관을 준비하면서 랄라의 필요성과 희망을 보며 큰 감동을 받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재개관을 준비하면서 3회의 여성주의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모집인원을 훨씬 초과한 신청자와 함께 하기 위해 책상을 다 빼고 의자만 놓고 강의를 들었죠. 그때 느낀 젊은이들의 열기, 강연이 끝나고 공간을 정리할 때까지 남아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는 마음, 그런 순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화 준비하면서 우려의 소리를 워낙 많

이 들었던지라 마음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강연을 신청했으나 오지 못하게 된 자신의 사연까지 일면식도 없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기억에 남습니다. 서울이 아닌 인천에서 시도했다는 것에 고맙고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는 강연후기도 많았습니다. 팔라의 필요성과 희망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 공사 후의 도서관 내부 ①



▲ 공사 후의 도서관 내부 ②

“난 이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지 않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특화지원사업 자체가 워낙 큰일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재개관식을 마치고 나니 큰 고비 넘긴 것 같아 마음은 편합니다.

도서관의 가장 큰 변화는 이용자인 것 같습니다. 특화 전에는 주로 엄마와 아이인 가족단위가 이용자였다면, 특화 후에는 다양해졌습니다. 여성주의 책을 빌리러 오는 일이 늘었습니다. 과제로 읽어야 하는 책이 여기에만 있다거나, 여성주의에 관심이 있어서 새롭게 책을 빌리러 옵니다. 도서관 근처에 사는 분들도 이 곳은 뭔가 해보고 싶은 공간이라며 자주 놀러옵니다. 그렇게 오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앞으로의 일을 계획해 보는 시간이 즐거운 요즘입니다.



도서관에 오는 분들의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일단 도서관에 들어오면 탄성 내지는 환한 웃음과 함께 “여기 너무 예뻐요!”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면 정말 좋겠다며 부럽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모임장소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단순한 대관뿐만 아니라 책모임을 제안하는 문의도 있습니다.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SNS를 보고 찾아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랄라를 찾아주신 분들의 랄라에 대한 바람과 덕담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개관식을 찾아주신 분들께서 건네주신 한마디들이 생각납니다. 동네 여성들이 모여 수다 떨고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길, 사람과 마을을 이어주는 작은 날갯짓이 되길, 행복을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길, 따뜻하고 오래도록 좋은 공간으로 이어지길,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는 말씀들이 랄라가 계속해서 꿈꿀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된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자’,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라는 슬로건처럼 조그마한 연대가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삼산동에서 시작된 이런 새롭고 좋은 일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길 응원하신 분도 계셨고, 성평등을 내건 곳이 공격받는 현실에서 여성주의를 내걸고 하는 그 용기에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랄라에 대해 보여주시는 큰 마음들을 잘 새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역시 개관식을 찾아주신 어느 분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랄라’ 이름처럼 생기 넘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탈라의 2018년은 어떠 한가요?

‘함께 떠들고, 배우고, 탐색하고, 시도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공간’, 재개관식 때 나눠준, ‘우리 안의 가능성을 펼칠 시간’이라는 제목의 브로셔에서 소개한 탈라입니다. 탈라의 시선에서 ‘새로운 세상’은 ‘모든 생명이 자기다운 모습으로 존중받고, 성별로 역할과 외모와 일을 구별하지 말고, 성평등을 위해 함께 행동하는 세상’입니다. 이를 위해 책모임, 동아리, 기획전시, 성평등 교육, 심리상담, 여성영화 상영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집담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여성주의에 관심이 있어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즐거운 상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성주의라는 주제에 맞는 다양한 제안을 받을 예정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이웃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책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지만, 특히 작은도서관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만나는가’입니다. 재개관하기 전에는 엄마로서의 여성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엄마로서뿐 아니라 여성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2018년도에는 먼저 ‘모성신화’ 파헤쳐보기를 합니다. ‘좋은 엄마 되기가 예전의 주요 강좌였다면, 이전과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성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성들이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안전’은 ‘관계의 안전’으로, 이야기를 가리지 않고 터놓아도 질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밖에서 떠벌리지 않는 신뢰가 있는 공간이 되도록 애써보려 합니다.



이러한 바람을 담아 2018년도에 펼치려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합니다.

책모임 여성주의 책모임을 주 1회 만남으로 진행합니다.

글쓰기 탈라에서 하고픈 것을 반영한 여성주의 글쓰기를 합니다. 후속으로 글쓰기모임을 염두에 두고, 글쓰기 특강을 시작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획 강좌 여성주의 활동가나 작가와의 만남으로 분기별 강좌를 하고 여성주의캠프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성영화 상영 매일 여성영화를 상영하고 이야기 나누는 영화모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여자들과 인천여성영화제 때 감독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를 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획전시 분기별로 여성주의 카드뉴스를 활용한 전시와 '누구나 전시'를 주제로 지역의 미술동아리 등의 작품을 전시하려 합니다.

여성주의 심리상담 월 1회 여성주의 상담의 날로 '타로 데이'를 운영하며 하반기에는 자신을 돌보며 여성의 자기 힘을 기르는 '아티스트 웨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평등교육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책놀이를 해왔는데, 올해에는 성평등교육의 내용으로 준비합니다.

특화를 고민하는 다른 도서관 활동가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특화 주제로는 지역의 요구도 반영하고 도서관 활동가들도 관심을 갖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을 찾길 바랍니다. 주제를 정하고 나면 같이 고민했던 사람들과 그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더 만나면서 특화도서관의 과정을 만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특화를 고민했던 랄라 활동가들 스스로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랄라 개관 무사히 했네요. 애썼어요. 우리 정말 열심히 했죠. 토닥토닥.
이제 룰루랄라 즐겁게 갑시다!

